

사진기자의 단상

유채꽃 촬영에 몰두한 카메라맨들 "포착은 내가 최고"



봄이 무르익어가면서 색색의 꽃들도 한층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온갖 꽃들이 수놓는 남도의 들녘은 어느 계절보다 푸근하고 정겹습니다.

지난 13일 휴일을 맞아 나주 영산강변에는 봄의 정취를 돋우기 위한 유채꽃 촬영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아름다운 남도의 봄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살랑살랑 봄 바람에 춤추는 유채꽃도 장관 중의 장관이지만 노란 유채꽃에 둘러싸여 사진 촬영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도 역시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들의 카메라에는 남도의 젓줄 푸르른 영산강을 따라 넘실넘실 봄을 만끽하고 있는 노란 유채꽃의 모습이 가득 담겨있을 것입니다.

반짝이던 봄 햇살과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꽃내음까지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봄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바람 따라 하늘을 덮는 벚꽃은 눈꽃이 되고, 파릇파릇 새로 난 푸른 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은 금빛이 되고, 금빛 햇살을 받는 이들의 표정은 새로운 희망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로 잡는 봄의 풍경은 모두 작품이 됩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한 번 내다봅시다. 봄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김지승

"엄마 나 학교 안가면 안돼?" "그래도 가야지 애들은 어찌라지..."

이 대화는 2006년 3월부터 1년 내내 필자가 엄마와 했던 것이다. 얼핏 보면 학생과 엄마의 대화 같지만 그건 학교 가기 싫다는, 정확히 말하면 출근하기 싫다는 선생 딸과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엄마의 대화였다. 직장인이 되어, 그것도 바라고 바라던 교사가 돼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게 내 인생에 파란을 몰고 왔던 그 아이들과의 만남은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시작되었다.

2006년 3월! 젊음과 열정만이 있던 새파란 초

눈물로 보낸 '첫 제자'

임에게 답이 없게 됐다. 전문계 고교 1학년 담임, 나는 아이들과 첫 대면에서 나의 1년이 녹록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고 30명의 눈빛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30명 중 10명이 각 중학교 겨울급(?) 인사가 있었으며 그나마 2명은 첫 등교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첫 기선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퇴는 절대 없다. 30명 전원이 진급 할 거야"라고 큰 소리를 댔다. 유독 자퇴율이 높고 그만큼 아이들이 학교를 쉽게 포기한다는 말에 고심 끝에 한 얘기였다. 어떻게든 자퇴 없이 이대로만 올려 보내면 성공한 거라고 내 자신을 다잡았다.

하지만 호인장담했던 공약은 다음날부터 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매일 2명 이상씩 교과목 박 돌아가며 무단결석에 땀방이, 오로바이 사고, 그리고 폭력사건까지 하루도 실 틈 없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매일

메일이 꼬박 꼬박 왔다.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야 말았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4월 초부터였다. 학생은 학교에 자신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자신은 전교생이 다 아는 한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이와 이렇게 된 거 집 형편도 안 좋으니까 '알바'나 하면서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아무런 표정없이 했다. 몸이 안 좋아 아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된 엄마는 내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학교를 안 다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는 이미 학교에 오만 점이 다 뜯긴 듯 한 눈물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자퇴서에 도장을 찍으며 눈을 떠는 나는 울지 않았다. 웬지 내가 여기서 울면 꼭 이 아이의 인생도 이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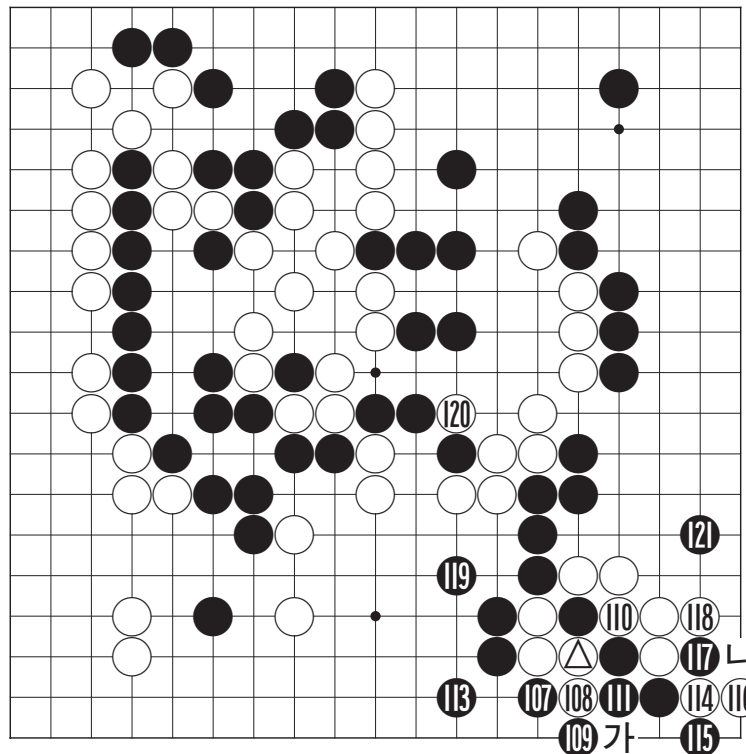
처럼 우울해질까봐 꼭 참았다. 하지만 그 날 오후 출석부에 빨간줄을 그으며 결국 눈물을 터트리기도 말았다. 첫 담임이었고 나의 첫 제자가 그렇게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너무 일찍 내보내진 것이다.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열자리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너무 마음 아파하면 안된다고 나머지 29명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고 그리고 교사는 왔다갔다 해선 안된다고...

그렇게 힘든 일년을 보내고 좌중우돌 속에 29명의 아이들은 무사히 진급을 했다. 그러나 일찍 세상으로 떠났던 그 제자는 내가 다른 학교로 옮겨온 지금까지도 마음 속에 앙금이 돼 남아있다.

조금 더 경험이 많았다면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후회도 많이 했던 담임... 그 경험으로 앞으로 왔다갔다만 하는 교사는 절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담임... 내가 결심했던 그만큼 그 아이도 그리고 나의 첫 제자 30명 모두가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기도를 오늘도 해본다.

(서강고 교사)



돌려치기의 묘수 8보(107~121)

8보(107~121) 돌려치기의 묘수 백 △로 단수쳐서 우하귀가 몽땅 백의 수중으로 들어가는가 싶은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번에 국면을 반전시킨 김희관 5단 묘수가 터져 나온다.

혹 107로 돌려치기 수가 준비된 묘수로, 111까지가 절대 선수며 그런 다음 113으로 후구쳐자 별다른 피해도 없이 깨끗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다. 김희관 5단은 애초부터 이 수를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바깥을 막아왔던 것이다. 수세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일거에 국면을 전환 시키는 짜릿한 수다.

기용성 5단은 초반부터 계속된 우

바둑소식

이세돌, 후지쯔배 8강 진출

이세돌 9단 등 한국 기사 4명이 제 21회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8강에 안착했다. 이세돌은 14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일본의 신예 강자인 이바마 유타 7단을 꺾었고, 박영훈 9단은 일본의 다카오신지 9단을 제압했다.

이창호·조한승 9단은 각각 중국의 공지에 7단, 일본의 야마시타 케이이 9단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 8강전은 오는 6월7일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국내 선수가 4명이나 진출해 한국의 대회 11연패 전망이 밝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3시간 1분 40초이며, 우승 상금은 195천만 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4월 15일(음 3월 10일 乙酉) |
|----------------|---|
| 子 | 36년丙子생 경사가 생긴다. 48년戊子생 보고 싶은 사람 떠나고 미운 사람 보인다. 60년庚子생 시간은 지루하니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72년壬子생 뉘니 준비를 잘해야 보상이 따르리라. 84년甲子생 애인이 생길 수 있으니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9,30 |
| 丑 | 37년丁丑생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살펴봐라. 49년己丑생 분수를 지켜야 내공이 줄어든다. 61년辛丑생 대손이 생길 수 있다. 73년癸丑생 앞날에 변화가 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85년乙丑생 속단은 금물이니 여유 있게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 11,34 |
| 寅 | 38년戊寅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라. 50년庚寅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62년壬寅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 큰 도움을 준다. 74년甲寅생 일회용비가 있지만 꼭 쓰지말고 양호니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0,32 |
| 卯 | 39년己卯생 관과 놀람 만한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辛卯생 결혼기회는 다투게 잡지 마라. 63년癸卯생 옛 일은 잊고 화해하라 망신을 면한다. 75년乙卯생 자녀와 직장 사이에 불륜사가 발생하나 속근이 도와준다. 행운의 숫자 : 12,35 |
| 辰 | 40년庚辰생 서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壬辰생 직장에서는 인정을 줘야 하는 조신하라. 64년甲辰생 어려운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6년丙辰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잊고 나가봐라. 행운의 숫자 : 22,28 |
| 巳 | 41년辛巳생 바퀴가 안 된 일이 자신을 괴롭힌다. 53년癸巳생 자나친 욕심은 평화를 해친다. 65년乙巳생 가까운 사이에 신사는 절대로 시작도 하지마라. 77년丁巳생 고운 정미운 정다 생기니 음모로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21,44 |
| 午 | 42년壬午생 이성과 복으로 구슬수가 생길 수다. 54년甲午생 인생의 후반전 다시한번 달려봐라. 66년丙午생 마음이 괴로우니 대화가 필요하다. 78년戊午생 형제 도움이 절실하니 찾아보고 친해봐라 결정타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18 |
| 未 | 43년癸未생 부부간에 서로서로 살펴봐라. 55년乙未생 아내의 모습이 예뻐 보인다. 67년丁未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적으리라. 79년己未생 삼삼이런 생각하면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4,43 |
| 申 | 44년甲申생 대화가 예상되니 굳은 마음을 가조하라. 56년丙申생 자신 재주 믿다가는 큰일을 그르친다. 68년戊申생 들고 날 때를 정확히 지키면 오해는 사라진다. 80년庚申생 친한 친구일수록 말조심 행동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4,31 |
| 酉 | 45년乙酉생 나날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서 행하라. 57년丁酉생 아들과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봐라. 69년己酉생 부부사이에 의무를 다하고 나면 애정은 썩는다. 81년辛酉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풀린다. 행운의 숫자 : 17,42 |
| 戌 | 46년丙戌생 주변의 도움으로 諸事가 풀려간다. 58년戊戌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70년庚戌생 여자의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82년壬戌생 물고 싶은 것이 생기니 마음껏 물어라. 행운의 숫자 : 01,41 |
| 亥 | 47년癸亥생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 또 조심하라. 59년乙亥생 구슬수가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하니 조심하게 처신하라. 71년丁亥생 자신의 폭언으로 쌓아온 명성이 격정된다. 83년己亥생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을 수다. 행운의 숫자 : 23,43 |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1139> | 오하오우 니혼고 <1139> | 니하오 쑹구위 <116> | 한자 이야기 <755> |
|--|--|---|--|
| <p>What can we do to make you change your mind?</p> <p>자네 마음을 돌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p> <p>A : Well, I guess I'm going to have to quit tomorrow. B : What can we do to make you change your mind? A : I don't think you can do anything. B : Well, I guess we'll have to say good-bye then.</p> <p>A : 음, 내일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B : 자네 마음을 돌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A :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B : 음, 그러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p> <p>* 어떻게 해야 자네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지? = What can we do to make you happy? * 어떻게 해야 그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 = What can we do to save the environment? * 어떻게 해야 자네가 이직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 What can we do to keep you from leaving?</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 <p>皆(みんな)で知恵(ちえ)を絞(しぼ)ろう</p> <p>같이 지혜를 짜보자</p> <p>A : 今年(ことし)は何とか営業(えいぎょう)目標(もくひょう)を達成(たっせい)したんですね。 B : そうだね。でも、景氣(けいき)の回復(かいふく)を待つだけじゃ難(むずか)しいと思うけど。 A : 何かいいアイデアを考(かんが)えないといけませんね。 B : うん、皆(みんな)で知恵(ちえ)を絞(しぼ)ろう。</p> <p>A : 올해는 어떻게든 영업 목표를 달성하고 싶군요. B : 그래야지. 하지만 경기 회복을 기다리다가 해어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A : 뭔가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B : 응, 같이 지혜를 짜보자.</p> <p>何(なん)とか: 어떻게든 ~ないといけません: ~지 않으면 안 된다 絞(しぼ)ろう: 짜보자</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 <p>我和表姐一起去。</p> <p>나와 사촌누나가 함께 갑니다</p> <p>A : 你去哪里? 你去哪儿? B : 我去公园。 我去公园。 A : 你和谁一起去? 你和谁一起去? B : 我和表姐一起去。 我和表姐一起去。</p> <p>A :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B : 나는 공원을 갑니다. A : 당신과 누가 함께 갑니까? B : 나와 사촌 누나가 함께 갑니다.</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p> | <p>傍若無人(방약무인)</p> <p>겉만, 같을 약, 없을 무, 사람인</p> <p>방약무인(傍若無人)은 본래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방자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한다. 안하무인(眼下無人)과 비슷한 말이다. 위(衛)나라 사람인 형가(刑何)는 성격이 침착하고 생각이 깊으며, 문학과 무예에 능했고, 애주가(愛酒家)로 유명하였다. 그는 청운(靑雲)의 꿈을 품고 위나라의 원군(元君)에게 국정(國政)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변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현인(賢人) 및 호걸(豪傑)들과 교류하기를 즐겼다. 그러던 중 연(燕)나라에서 촉(筑: 비파 같은 악기)을 잘 타는 고점리(高漸離)와 의기투합(意氣投合)하여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술잔을 벌이고 취하여 흥이 나면 고점리의 연주에 맞춰 옆에 있는 형가가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처지에 비분강개(悲憤慷慨)하여 서로 손을 맞잡고 울기도 웃기도 하였는데 이때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傍若無人] 행동하였다고 한다. 끝내 형가는 연나라의 태자 단(丹)의 부탁으로 진시황제의 암살을 기도하였다가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진시황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였다. (史記, 刺客列傳)</p> <p><한여원(韓余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